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솔직, 대담한 性

남편 조루증 치료 아내에게 달렸다

사정 장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루증은 특히 젊은 층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삽입 전 전희에서, 혹은 삽입하자마자 왕복 몇 번만으로 사정하는 심한 조루증의 경우 환자로 취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정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같은 여성일지라도 성관계 때의 신체적, 감정적 조건과 주위환경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조루증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기 쉽지 않은 이유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참작해 평가하는데 보통 성관계시 질내 삽입하여 지속적인 피스톤 운동을 할 때 3분 이내 사정을 하는 상태를 조루증이라고 한다.

또 성관계 2회중 1회 이상은 여성이 성적 만족을 느끼도록 충분히 성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조기에 사정해 버리는 경우도 조루증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의학자 카프칸은 '남성은 성행위중 고도의 성적흥분을 유지하면서 사정을 자기 의지대로 완전히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너무 엄격하다. 이대로라면 대부분의 남성을 조루증 환자로 규정지을 수도 있다.

첫 관계를 경험할 때부터 계속 조루증이 나타나는 젊은 남성들이 병원을 찾을 때 조루증의 원인이 될 만한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만족스럽게 성생활을 하다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조루증이 발생하는 경우 전립선이나 후부 요도의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또 조루증이 장이나 방광의 이상 증상 또는 감각운동장애와 동시에 나타나면 신경질환일 가능성도 있다. 외상이나 복부수술 등으로 조루증이 오는 경우도 있다.

마스터베이션 때문에 조루증을 겪을 수도 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는 성교육이 부족하고 대부분 청소년들이 성적 만족을 마스터베이션(자위)을 통하여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위행위 때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갖고 있다보니 의도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사정하려 하고 이 때문에 조루증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다.

카 섹스나 자녀와 같이 방을 쓰는 등 주위를 의식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성관계를 자주 갖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조루증 환자가 되기도 한다.

또 남편과의 성행위를 비난하거나 거부하는 언동은 사정을 조절하는 남성의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부부생활에도 두려움을 갖게 한다.

예를 들어보자. 30세 부인은 성적 충동을 느끼는 것은 단정치 못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전희도 없이 바로 삽입을 원했고, 남편이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느낀 남편이 다시 성행위를 요구할 때면 매정하게 거절해 버리곤 했다.

결국 이 부인은 남편의 조루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또 35세의 남성은 과거에는 사정을 잘 조절할 수 있었는데 부인이 성관계 때마다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고 관계 후 자위행위로 극치감을 느끼게 됨을 알고 발기도 안 된다며 병원을 찾았다.

28세의 이모씨는 현재 사귀고 있는 여성과는 이상하게도 성행위 시간이 짧아져 보통 30초 안에 사정해 버린다고 호소하였다. 상담결과 애인이 자기의 성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성행위 중에도 그녀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이씨의 애인은 그가 때때로 용기를 내서 그녀의 완고한 자세에 대해 불평을 하면 오히려 조소를 하곤 하였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고, 다른 여성을 사귀어 결혼하게 된 뒤 조루증의 증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남편의 조루증은 부인의 성적 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치료 역시 부인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젠틀맨 비뇨기과 원장〉

뉴스퀴즈

77.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개최된다고 남북 정부가 8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에 이은 두번째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나 합의를 도출해 낼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열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①평양 ②서울 ③제주도 ④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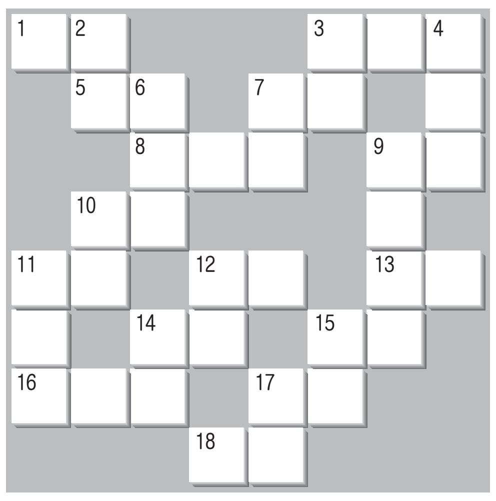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64 >



→ 가로풀이

1.시간적, 순서상으로 맨 앞. 책을 ~부터 끝까지 읽었다. 3.신진대사의 결과로 사람이나 생물의 몸 안에서 생긴 불필요한 찌꺼기를 이르는 말. 5.나쁜 냄새. 7.각각의 자기 자신. ~가 맡은 일은 열심히 해야 한다. 8.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힘이 약한 작은 나라. 9.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 10.불충분하거나 허술한 점. 11.주위를 에워쌈. 12.기사나 글이 실리는 인쇄물의 면. 13.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14.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대(對)함선 공격용 수뢰. 15.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 16.친구나 동창 등 여러 사람의 거주지명을 적어 모아 둔 장부. 17.초목의 뿌리.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기초, 기본. 18.물렁하게 잘 익은 감.→연감, 연시.

↓ 세로풀이

2.박자, 가락, 음성 등을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해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 3.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드는 비용.→여비, 행비, 행자. 4.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물. 또는 그런 물을 뒤집어쓰게 되는 일.→물세례. ~을 맞다. 6.무르고 약한 점. ~이 드러나다. 7.각 나라. 또는 여러 나라. 9.양 방향 교통량이 시간별, 요일별로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교통량이 적은 방향 차로를 임시로 사용하는 제도. 10.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거짓. ~ 보도. 11.늦여름에 잘고 동글동글한 열매가 조롱조롱 송이를 이루어 익는 과일로 담근 술. 12.땅속에 묻어 두고, 그 위를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면 폭발하도록 만든 폭약. 14.위인이나 유명인이 한 말을 간추려 모은 기록. 15.베끼거나 고친 것에 대하여 근본이 되는 서류나 문건. 17.가까운 데 있는 것은 잘 보아도 먼 데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시력.

〈함께 풀어봅시다 263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김미영·광주시 서구 풍암동

이상이·광주시 북구 운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13일(음력 7월 1일 己卯)

子 36년생 배우자편에 불편사가 발생하니 처가 쪽을 잘 살펴보라. 48년생 문서가 새롭고 승진 영전하는 경사가 있을 수다. 60년생 가까운 친척으로 손재수가 있을 수다. 72년생 신중에 신중 하라. 84년생 혼자서 외롭도다. 행운의 숫자 : 17, 38

丑 37년생 수족을 살펴보라. 49년생 부부간에 언쟁이 발생한다. 오늘은 참아보라. 61년생 모든 일 즐겁다. 73년생 생기 있는 희망이 찾아오는 형상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85년생 욕심은 금물. 모든 것을 점검하라. 행운의 숫자 : 03, 29

寅 38년생 좋은 일과 연결되는 형상이다. 50년생 주변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온다. 62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 74년생 남 여 간에 이성에 빠질 수니 정신을 차려야 헤어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37

卯 39년생 도끼에 발등 찍힐 수니 근간을 주의하라. 51년생 바람이 일수니 중정하며 지내라. 63년생 생활에 만족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 75년생 풍류에 휩쓸려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7, 34

辰 40년생 원거리 여행은 조심해서 행하라. 52년생 작은 일을 주의하라 시비가 발생한다. 64년생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76년생 우연으로 길사와 연결되나 오래는 못 간다. 행운의 숫자 : 05, 40

巳 41년생 득보다 실이 많고 상부상조할 기회가 생기나 손실이 걱정된다. 53년생 시기 질투 모함으로 손실이 우려되니 적극 참여는 조심하라. 65년생 흉은 가고 길사가 접근 한다. 77년생 남의 말을 꼼꼼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4, 26

午 42년생 새로운 일을 찾으나 아직은 아니다. 54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이 따로 있다. 66년생 겉 다르고 속 다른 주변인이 방해를 도모한다. 78년생 과욕은 금물이나 자기의 내실도 챙겨야 할 때. 행운의 숫자 : 23, 44

未 43년생 문서와 재물이 새롭게 생겨나니 고맙게 생각하라. 55년생 고목회춘의 형상으로 기쁨을 얻는다. 67년생 괴롭히던 사람이 협조자로 변한다. 79년생 형제, 수하인으로 인해 불편사가 발생하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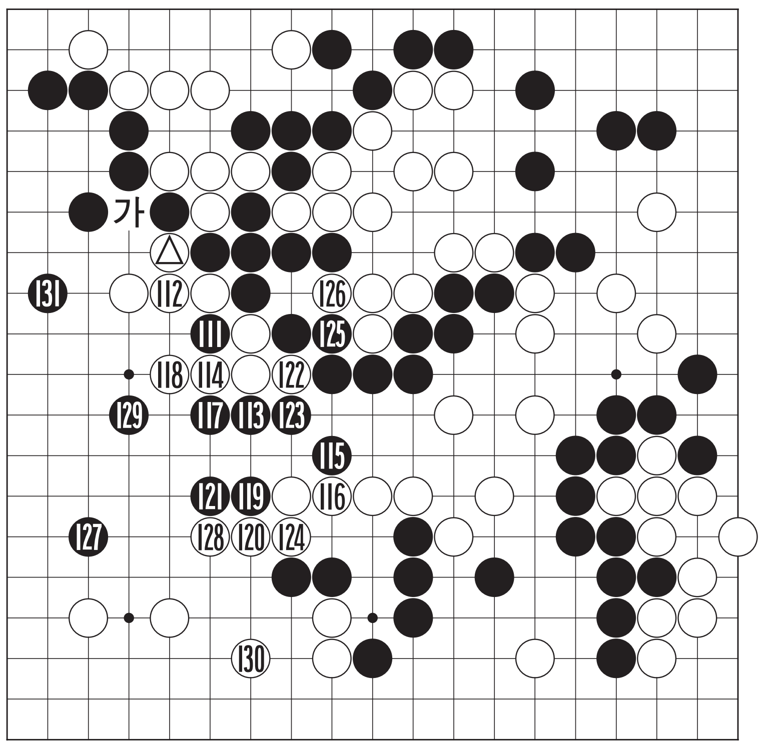
申 44년생 병약한 길목이다 피곤이 중해질까 두렵다. 56년생 큰 계획은 중단하고 실리 찾아 집중하라. 68년생 희망찬 설계로 모든 일이 순행한다. 80년생 색정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하리로다. 행운의 숫자 : 09, 45

酉 45년생 좋은 매너 좋은 관계를 만드니 베풀면서 보내라. 57년생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준비를 잘하라. 69년생 사기에 엉킬 수니 신중 하라. 81년생 협조자가 생기나 참여는 피하고 先吉後凶으로 불편하다. 행운의 숫자 : 01, 36

戌 46년생 부부간에 갈등은 변동으로 나타난다. 58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날아간다. 70년생 자신의 불편사가 주변에까지 미치니 혼자서 조심하라. 82년생 생소한 길목에서 결정이 어렵도다. 행운의 숫자 : 19, 35

亥 47년생 흉이 복으로 변한다. 59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온다. 71년생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내용에 활동을 집중하라. 83년생 복이 흉이 될 수도 있으니 매사를 숙고하고 자선을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 04, 31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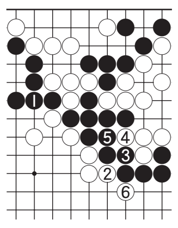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3회전

공격의 효과 7보(111~131)

白 박정규 5단 (KT전남본부)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참고도〉

백 △로 끊어 박정규 5단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다. 이때 흑은 '가'로 이을 수는 없다는 것이 또 고통스럽다. 만약 잇게 되면 '참고도'의 백 2로 조여가 6까지 쉽게 죽어 버린다.

상기된 얼굴로 반상을 노려보던 김광식 5단은 111로 변신하고 113으로 붙여 간다. 다행히도 이 대마는 115로 들여다 보고 119와 121이 선수가 되어 간신히 숨결이 살아났다.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구명줄을 잡는데는 성공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형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박정규 5단은 공격의 대가로 백 126으로 푹 찔러 흑 6점을 잡는 맛을 남겼을뿐만 아니라 130으로 하변의 찜찜한 곳을 가일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격의 효과를 톡톡히 얻어내고 있다.차이는 크지 않지만 백의 우세가 더욱더 공고해진 것이다.

김광식 5단은 127로 변신하고 131로 실리를 챙기는 등 형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제3회 중환배 대진표 확정

격년제로 대만에서 열리는 중환배가 지난 11일 3회 대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한국 대표선수단(단장 오규철 본보 바둑해설위원)은 이세돌·이창호·최철한·박영훈·박정상·조한승 9단 등 6명이며 1회전(16강전)에서 이세돌 9단은 고노린(일본) 9단, 이창호 9단은 장쉬(대만) 9단, 최철한 9단은 린즈한(대만) 9단, 박영훈 9단은 왕리청(대만) 9단, 박정상 9단은 조치훈(일본) 9단, 조한승 9단은 저우쥔쉰(대만) 9단과 각각 대결한다. 12일부터 17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대회의 우승 상금은 한화로 약 6천4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68>

Where can I exchange money?

어디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까?

A : Excuse me, where can I exchange money?
B : Oh, over there. Can you see where some people are waiting in line?
A : Yes. Thank you so much.
B : You're welcome. Enjoy your stay.

A : 여보세요, 어디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까?
B ; 저기에서요. 몇몇 사람들이 줄서있는 것 보이시죠?
A : 네, 감사합니다
B : 뭘요, 재미있게 머물기 바랍니다 .

* exchange money : 환전하다
* in line ; 줄서서, 줄 서 있는
* 100달러를 잔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 Could you break this $100 bill?
*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잔돈이 없어서요.
  = I want to make a call, but I have no change with m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68>

おれは, 君(きみ)が静(しず)かにしてほしい。

나는 네가 조용히 해주기를 원해

A：キャ! かわいい! 私はこれがほしいな。田中さんは。
B：おれは何(なん)でもいい。
A：どうして。怒(おこ)ってるの。田中さんは何(なに)かほしいものないの。
B：おれは, 君(きみ)が静(しず)かにしてほしい。

A：꺄아~! 귀여워! 난 이게 갖고 싶어. 타나카씨는?
B：난 뭐든 상관없어.
A：왜? 화났어? 타나카씨는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B：나는 네가 조용히 해주기를 원해.

おれ：나(남자들만 쓰는 표현)
ほしい：갖고 싶다
동사~~てほしい：~~하기를 원하다, ~~하기를 희망하다
怒(おこ)る：성내다, 화내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58>

我在飞机上，手机没开

저는 비행기 안에 있어서, 핸드폰을 켤 수 없었습니다.

A：王经理，你好，我一直给你打电话，找不到你。
Wángjīnglǐ, nǐ hǎo, wǒ yìzhí gěi nǐ dǎ diànhuà, zhǎobudào nǐ.

B：我在飞机上，手机没开。
Wǒ zài fēijī shang, shǒujī méi kāi.

A：你什么时候有空，咱们见个面?
Nǐ shénme shíhou yǒu kòng, zánmen jiàn ge miàn?

B：明天下午我给你电话。
Míngtiān xiàwǔ wǒ gěi nǐ diànhuà.

A: 왕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당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B: 저는 비행기에 있어서 핸드폰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A: 당신은 언제 시간이 되세요, 우리 만나야지요?
B: 내일 오후에 제가 당신에게 연락드릴게요.

一直 [yìzhí] 계속해서, 줄곧, 내내
找不到 [zhǎobudào] 찾지 못하다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7~8

한자 이야기 <585>

傳道(전도)

전할 전, 도리 도

전도(傳道)는 말 그대로 '도(道)를 전하는 일'이다. 유교에서도 옛 성현의 교훈을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던 말이다. 하지만 요즘은 주로 영어의 '파견하다'는 뜻의 '미션(mission)'이나 '복음의 전달'이라는 뜻의 '에반젤리즘(evangelism)'의 번역어로 사용한다. 즉 종교(宗敎) 특히 기독교 교리를 널리 전파시킴을 의미한다.

전도자(前導者)는 도를 전하기 위하여 신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들의 활동을 '선교(宣敎)' 또는 '포교(布敎)'라고 부른다. 넓은 의미로는 사람들이 속세에서 본래적인 삶의 방식이 가능하도록 신으로부터 파견되어 일하는 사람이고, 좁은 의미로는 신앙적 가르침을 널리 펼쳐 보다 많은 신자가 교회로 오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전(全) 지구적으로 행해진 19세기의 전도는 그리스도교 세계와 비(非)그리스도교 세계를 접촉시키고 소통시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최근은 '전도폭발(傳道爆發)'이라고 표현되듯, 경쟁적 해외전도활동은 비(非)그리스도교 세계와의 소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듯하다. 이제는 타자(他者)를 섬기는 전도를 생각할 때가 아닐까?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